

공주는 항상 괴로워요

옛날옛날에 아주 아리따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님한테는 불만이 한가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제비 한마리가 날라와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번만 그럴줄 알았던 공주님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제비의 횡포에 짜증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삭빠른 제비는 잠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나 깊은 시름에 잠겨있을때 날아와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님을 괴롭히는 것은 제비뿐이 아니었습니다. 두꺼비 역시 매일매일 공주님을 찾아와 갖은 구박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이걸 다 못한거야”라며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씨착한 공주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웃으며 제비와 두꺼비를 포용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종달새가 날아와 공주님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출연 : 공주 임남숙기자, 두꺼비 윤재호부장, 제비 김광륜차장, 종달새 이용우기자

프린팅코리아가 웹수(?)입니다

프린팅코리아와의 인연은 간발의 차이였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지만 사회생활 첫 출발이 사진기자였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취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프린팅코리아의 제안은 기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제안과 비슷한 것이었다.



망설임은 있었다. 협회라는 틀에는 스며들 자신도 없었고, 지방에서 넘겨받기로 한 스튜디오의 서면 계약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스튜디오 오픈은 물거품이 됐고, 인쇄문화협회 그리고 프린팅코리아와의 인연을 선택했다.

프린팅코리아가 일련의 잡지들처럼 전문적인 기술만 나열해 주는 잡지였다면 지금의 기자가 설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인지라 인쇄주변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프린팅코리아의 편집 방향은 기자에게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인쇄관련 전문지 기자라고는 하지만 기자는 아직도 서체와 관련된 일부 지식을 제외하곤 인쇄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상당히 미약한 편이며, 어쩌면 앞으로도 부족한 지식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내가 한가지 위안 삼는 것이 있다면 다행히도 나를 제외한 선배 기자들이 전문 지식에 해박해서 내가 못 다한 이야기를 충분히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자의 글에 관심을 가지고 부담이 갈 정도의 feedback을 보내주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좀더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길 막혀도 그냥 '고'입니다

인쇄매체에 몸을 담은 지 이제 7년을 넘어 8년째 접어든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듯 싶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사회의 틀 속에서 하루 하루의 극심한 변화가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세상이 됐다.



눈에 익고 손때 묻은 인쇄신문을 접어두고 프린팅코리아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올 한해도 변화의 바람 속에 몸을 던지고 있다.

늘 새롭고 신선한 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도 별로 신통치 못했던 것 같다.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 되면 앞으로의 계획만 무성한 채 실천강목이 꿈으로만 떨어져나가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또 살아온 세월도 한심하다.

출근길이 막히다보면 다른 길을 찾다가 결국 가던 길로 갈 걸하고 늘 후회하면서도 후시나 하고 오늘도 또 다른 길로 접어든다. 늘 후회만 되풀이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마냥 아깝기만 하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단순한 세상 이치를 망각한 채 알팍한 지름길만 찾아 헤매었는지. 참나. 올해도 노력과 도전은 뒤로한 채 안주의 길만 쫓아오지 않았다.

망망대해를 돛단배 하나로 건너려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는가. 언제쯤 잔잔한 물살과 선선한 바람에 배를 맡겨 평온한 바다를 건널까 하는 꿈보다는 거친 폭풍과 비바람을 헤쳐 안식의 그 날을 기다리며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지

금 더없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한다.

올해 무거운 마음을 이 지면을 통해 날려보내고 내년 편집후기는 밝은 마음으로 써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벌써 송년호인가요

지난 7월호로 프린팅코리아를 창간하고 나서 벌써 6호 제이자 송년 특집호를 내게 되었다.

새봄에 자리를 옮기며 시작된 창간작업,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언제 왔는지 모르게 지나간 가을을 건너 지금은 찬바람과 함께 찾아든 겨울, 책상 앞에는 5권의 프린팅코리아와 12월호를 기다리는 공간이 호젓하게 남아있다. 불과 몇 개월 간의 촌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한 권 한 권 쌓여 5권의 월간지 결과물들을 보며 뿌듯함보다는 월간지가 쌓이는 만큼 인쇄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부담감만 느는 것 같다.



10년 전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전문기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다짐했던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생활 속에 묻혀 느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세모가 되면 아쉽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 말은 영원히 개선할 수 없는 말인지 늘 반복되기만 한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그래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위로 삼으며, 언제나처럼 새로운 내년에는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에 다시금 나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해본다.